

중소기업 40% “하반기 경영환경 더 어려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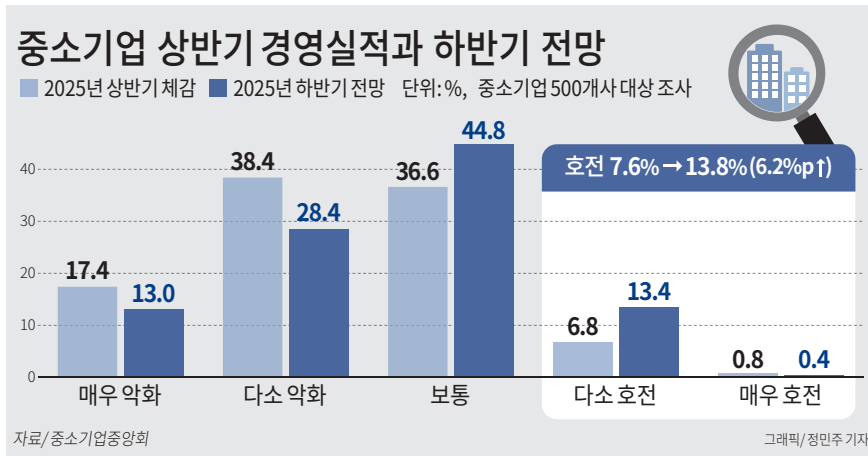
중기중앙회 500개사 대상 조사
예상 애로요인 ‘내수부진’ 꼽아
“내년 이후에나 경제 좋아질 것”

올해 하반기 경영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는 중소기업이 ‘호전’보다 3배나 많았다. 매출, 수익성, 자금, 인력 등이 모두 암울한 분위기다. 응답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내년 이후에나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경영애로 및 2025년 하반기 경기 전망 조사’를 실시해 2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결과에 따르면 올 하반기 경영환경에 대해 41.4%가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호전’은 13.8%에 그쳤다. ‘악화’가 ‘호전’보다 꼭 3배가 많은 모습이다. ‘보통’은 44.8%였다.

부분별 전망은 매출(판매)의 경우 ‘악화’ (39%)가 ‘호전’ (14.8%)보다 월등하게 많은 가운데 영업이익(수



익성), 자금사정 모두 비슷한 양상이다. 인력도 ‘부족하다’는 전망이 13.6%로, ‘남아돌 것’ (6%)보다 많았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예상하는 애로요인 1순위(복수응답)로 ‘내수부진(경기침체)’ (49.8%)을 꼽았다. 이외에 ‘원자재 가격 상승’ (41%), ‘인건비 상승’ (38.4%), ‘자금조달 곤란’ (21.2%)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전반적인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기업들은 하반기 최우선

경영전략으로 ‘경영내실화’ (27.6%)를 적극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영 리스크 관리’ (21.6%), ‘핵심인력 유지 및 역량강화’ (17%)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형 성장’ (10%)을 모색하겠다는 답변도 일부 있었다.

경제 회복을 예상하는 시점은 ‘2027년 이후’가 35.6%로 가장 많았다. ‘내년 상반기’라는 답변도 31.8%로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세금 부담 완화(52.6%) ▲금융지원 (45.8%) ▲인력난 해소 (28.4%) ▲원자재 수급 안정화 (26.2%) 등을 주로 꼽았다.

한편 올해 상반기 주요 애로로는 역시나 ‘내수부진’이 1순위였다. ‘원자재 가격 상승’ (43.6%)과 ‘인건비 상승’ (39.6%)도 애로가 컸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반기 중소기업의 경영 전망은 상반기에 비해 다소 개선될 전망이지만 하반기에도 내수부진이 주요 경영 애로요인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는 중·단기적 내수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면서 특히 “중소기업 2곳 중 1곳이(52.6%) 세부담 완화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은 만큼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을 지원하고, 인력난 해소와 원자재 수급 안정화 등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HMM, ‘TTIA’ 확장 개발

HMM은 현재 운영 중인 스페인 알헤시라스 컨테이너 터미널(TTIA)을 확장 개발한다고 2일 밝혔다.

HMM은 지난달 30일 스페인 알헤시라스 항만청에 TTIA 남측 부지 1단계 개발을 추진한다는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다. 총 투자금액은 1억5000만 유로(한화 약 2400억 원) 규모다. HMM은 이 중 3500만 유로(약 56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나머지 금액은 2대 주주인 CMA CGM과 외부 차입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TTIA는 총면적 30만㎡에 연간 처리량 160만 TEU의 현대식 반자동화 터미널이다. 이번 1단계 확장 개발을 통해 2028년까지 총면적 46만㎡에 연간 처리량 210만 TEU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2단계 개발까지 완료되면 연간 280만 TEU를 처리할 수 있는데, 원활한 개발을 위해 터미널 운영 기간을 기존 2043년에서 2065년까지 22년 연장한다.

HMM 관계자는 “알헤시라스 터미널은 남유럽의 주요 환적 허브이자 스페인의 수출입 관문으로 터미널 수익 창출은 물론 유럽 노선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해외 터미널을 적극적으로 투자,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시멘트협회 “업황 위기, 기술혁신 기회로 삼아야”

제4회 시멘트의 날 기념식

전근식 협회장, 불황 극복 메시지
“탄소중립 통해 지속 가능성 실현”

시멘트업계가 회색빛 업황 속에서 시멘트의 날을 보냈다.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 사상 최악의 시멘트 내수 위축, 갈수록 늘어나는 친환경 투자 요구 등으로 어느때보다 암울한 시기를 맞으면서다.

특히 업계는 침체 상황이 계속되면 올해 시멘트 연간 내수 출하량이 80년대 수준인 4000만 톤(t) 아래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선 3000만 t 중반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극단전 우려도 나온다.

2일 시멘트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쌍용C&E는 올해 1분기 180억원의 영업손실이 났다. 지난해 동기 영업이익은 102억원이었다. 매출도 지난해 1분기 3762억원에서 올해엔 3099억원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1분기 당시 164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던 성신양회도 올해 들어선 63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매출도 2827억원에서 2286억원으로 하락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4회 시멘트의 날’ 기념식에서 (앞줄 왼쪽 4번째부터)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한국시멘트협회 전근식 회장 겸 한일시멘트·한일현대시멘트 대표, 쌍용씨앤이 이현준 대표, 성신양회 한인호 대표, 아세아·한라시멘트 임경태 대표, 삼표시멘트 이원진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멘트협회

삼표시멘트는 올해 1분기에 2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당기순손실 5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1분기) 영업이익은 176억원, 당기순이익은 56억원이었다.

올해 들어 적자는 아니지만 한일시멘트는 지난해 1분기 당시 556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이 올해 들어선 17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매출도 4116억원에서 2982억원으로 크게 축소됐다. 아세아시멘트 역시 매출(2628억→2205억원), 영업이익(326억→100억원)이 모두 감소했다.

앞서 한국시멘트협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시멘트 내수 출하량은 812만t으로 전년 동기의 1039만t에 비해 21.8%나 줄며 IMF 직후인 98년 1분기 출하량(886만t)보다 아래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시멘트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시멘트협회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제4회 시멘트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전근식 시멘트협회장은 기념사에서 “최근 시멘트업계는 건설경기 침체, 제

조원가 상승, 환경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산업구조가 급격히 재편되는 중대한 변곡점에서 있다”면서 “위기를 ESG 기반의 산업전환과 기술혁신의 기회로 삼아 혼합시멘트 확대, 순환자원 재활용,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등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활발히 이어가는 등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소공연,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촉구

소상공인 금융정책 간담회
‘소상공인 설립 주도’ 원칙 재확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소공연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연합회 사무실에서 소소뱅크 설립준비위원회와 ‘소상공인 금융정책 간담회’

를 갖고 정부가 추진 중인 제4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선정 방침과 관련해 “소상공인 전문은행은 애초 취지대로 소상공인이 주도하는 형태로 만들어야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소공연은 지난 5월28일 제4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나선 소소

뱅크 설립준비위원회와 MOU를 체결하고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한 바 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이 역대급 위기에 고통받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시중은행은 2025년 1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30.3% 증가한 3조8000억원을 기록하고 같은 기간 특수은행의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9.7%가 증가한 2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며 “소상공인

들의 역대급 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자 장사만 나서는 왜곡된 금융시스템도 소상공인 위기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회장은 “이제야말로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이 절실하다”면서 “소상공인 전문은행 인가를 표방한 제4인터넷은행이 설립취지에 맞게 신속히 인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

글로벌 물류전문가 영입

CJ대한통운이공식
이었던 글로벌사업부
문 대표에 글로벌 물
류 전문가 조나단 송
전익스피다이터스인
터내셔널 부사장(사
진)을 영입했다.



2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송 대표는 30여년간 물류업계에 몸담으며 익스피다이터스에서 60여개국의 영업·마케팅을 총괄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송 대표는 글로벌 물류 시장 내 영업 마케팅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온 전략가”라며 “그의 리더십이 회사의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첨단 물류기술과 시너지를 발휘함으로써 글로벌 영토 확장은 물론 ‘글로벌 탑10’ 비전 달성과 공급망 주도권 확보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대동그룹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신설

대동그룹이 ESG 경영 고도화, 지배구조 투명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보상위원회를 신설했다.

대동그룹은 대동과 계열사인 대동모빌리티, 대동기어, 대동금속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를 담은 ‘2025 그룹 ESG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발간한 ESG 보고서는 그룹 차원의 ESG 경영체계 구축과 환경 및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고도화 등 한층 발전된 내용을 포함했다.

권기재 대동 그룹경영실장은 “LCA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